

동작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100% 감면한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 대상으로 재산세(본세)를 전액 감면한다.

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9월 18일(목) 시행된다.

구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 일(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

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관내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본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는 10월중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관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4천4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이 다자녀 양

육 환경 개선은 물론,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가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추석맞이 93억! 영등포 사랑상품권 발행...‘상생 장터’도 8일로 연장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경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영등포 사랑상품권 93억 원 발행 ▲추석맞이 상생 장터 확대 운영이다.

먼저 구는 오는 9월 16일 오후 6시에 총 93억 원 규모의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발행액은 173억 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영등포 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

으며,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총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며,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학원, 약국 등 2만 3천여 개 서울페이가맹점 및 공공배달앱 ‘행거요’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며, 보유액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또 상품권 구매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상생 장터’ 운영 기간도 특별 연장한다. 당초 5일간 운영되던 직거래

장터를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총 8일 동안 진행한다.

이번 장터에는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청과시장 ▲영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물론, ▲경남 고성 ▲전남 영암 ▲충남 청양을 포함한 친선·협약도시 14곳이 참여해 전국의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터에서는 한우, 김, 미역, 과일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 공방 상인의 수공예품까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참여형 공연과 이벤트 등도 마련돼 명절의 분위기를 미리 느껴볼 수 있다.

구로구, 정원과 빛으로 물드는 안양천 ‘구로G페스티벌’ 26일 개막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안양천 일대에서 ‘2025 구로G페스티벌×어울림정원 빛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원와 빛,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외 행사로, 안양천이라는 수변 공간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구로G페스티벌’은 정원 조형, 야간조명, 지역 예술자원이 결합된 도심 속 문화정원 축제다. 낮에는 자연 속 정원 산책과 체험행사가, 밤에

는 화려한 조명과 공연이 이어져 구민에게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올해 축제는 ‘어울림정원 빛축제’와 통합 운영된다. ‘빛축제’는 19일 오후 7시 점등식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38일간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생태초화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사진 찍는 공간이 다양하고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져 야간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9월 26일부터 28일

까지 3일간 열린다. 26일에는 오후 1시 안양천 생태초화원에서 가수 서영은의 식전 공연과 함께 ‘구로가든페스타’ 개막식이 진행된다. 오후 2시에는 G밸리 마리오타워 일대에서 ‘제20회 G밸리 네타이 런(RUN)’이 시작된다. 저녁 7시부터는 안양천 주 무대에서 ‘구로구민 상 시상식’과 공식 개막식이 이어지고 바다, 민경훈, 율랄라세션, 마야 등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가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시민 모두 함께 즐겨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특별관람석 운영

9월 27일(토) 〈서울세계불꽃축제〉맞아 노들섬과 여의도에 총 3,700석 특별 관람석 운영

노들섬 ‘서울불꽃동행섬’ 변신, 다문화·한부모·다동이 가족 3,500명 관람...쾌적 안전한 관람 가능



서울시는 오는 9월 27일(토)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에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불꽃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 관람 공간을 운영한다.

먼저 축제 당일, 노들섬은 ‘서울불꽃동행섬’으로 변신한다. 노들섬은 불꽃축제의 주 행사 공간인 여의도 한강공원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 화약 낙진이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관람 인원을 제한해 보다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초청 가족 1,300명과, 선착순으로 접수한 다동이가족 2,200명, 총 3,500명이 ‘서울불꽃동행섬’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다. 다동이가족 신청은 9월 15일(월) 정오(12:00)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yeyak.seoul.go.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동이가족은 ‘서울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동반인은 직제가족으로 제한된다. 참가자는 축제 당일 14시부터 현장에서 ‘서울 다동이행복카드’, 신분증, 동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 가능하다.

여의도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다양한 이유로 집 밖 활동이 어려웠던 청년 200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 초청석을 운영한다. 청년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고 일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별 초청석을 마련했다”라며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서울시, AI·XR 시대 창조산업의 경계를 확장한다

AI·XR·메타버스 등 글로벌 기술융합 트렌드 대응... 창조산업 외연 확장 통해 기술격차 극복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은 이제 단순 창작을 넘어, AI·XR·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융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기술·문화·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콘텐츠 정책의 첫걸음으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출범한다.

AI·XR·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창조산업 전반에 접목되면서 제작 방식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의 결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엔터테크(Entertech)’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와 기술(Technology)을 융합한 신산업 영역으로, 음악·게임·미디어에 XR(확장현실),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K-콘텐츠와 AI·XR·버추얼아이돌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창조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수출 판종과 글로벌

기술격차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기획됐다. 시는 이를 통해 4만여 명의 시민과 120여 개 콘텐츠·기업이 함께하는 축제를 넘어, 서울을 ‘글로벌 엔터테크 허브’로 도약시키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 전시·공연을 넘어, 서울시의 엔터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자리로,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포럼 ▲XR/게임 체험 및 전시존 ▲실감미디어 전시 ▲e스포츠 대회 ▲VR 공연체험·버스킹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9.19.) 개막식에서는 ‘K-엔터테크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주제로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AI·메타버스 등 기술 융합을 통해 K-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과 서울을 글로벌 엔터테크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 XR·홀로그램 기술로 구현된 차세대 버추얼 아이돌 그룹 ‘스킨즈(SKINZ)’가 축하 공연을 통해 현실을 넘어선 디지털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 직후에는 ‘K-POP 산업의 미래 전략’과 ‘XR 기술의 가치와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이 열린다. 시는 이를 통해 엔터테크 산업 육성의 정책 방향을 민간·학계와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사 이틀 차(9.20.)에는 국내 게임사(㈜블루뉴런이 운영하는 인기 게임 ‘이터널리턴’의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가 DDP아트홀 2관에서 열린다. 전국 8개 지역 대표팀이 참가하며 팬 사인회와 인플루언서 매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된다.

XR 체험존에서는 서울의 상징 ‘해치’와 함께 가상세계에 접속해 ▲장감형 기기를 활용한 불피우기 ▲레이저 피하기 ▲실감형 슈팅게임 등 단계별 미션에 도전할 수 있다.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특별 굿즈가 증정돼, 놀이와 보상이 결합된 색다른 체험을 선사한다.

주요대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엔터테크, 서울 2025’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기술·문화·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콘텐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서울시가 엔터테크 산업의 개념과 메시지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장성 기자

45세 뇌 건강 골든타임 지켜주는 모바일앱 '브레인핏45' 출시

스마트폰으로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 플랫폼이 나온다. 시는 이번엔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치매’는 노년기에 관리하는 병이라는 인식을 깨고 중년기부터 일상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 ‘뇌 건강 습관’을 형성하게끔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금)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웰스케이 모바일앱 (브레인핏45)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월, 서울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예방 및 조기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앱을 개발했다.

‘브레인핏45’는 노화에 가속도가 붙는 45세부터 치매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 발병 위험을 약 45% 줄일 수 있다는 영국 의학저널 랜스(Lancet, 2024) 연구 결과에 착안해 이름 지어졌다.

랜스를 통해 연구팀은 청력 손실, 높은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우울

증,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속 14가지 위험 인자를 교정하는 것만으로 치매 유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치매는 발병 10~20년 전부터 진행되며 중년기부터 관리할 때 예방 효과가 가장 크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치매 예방의 적기’인 중년기부터 치매 위험요인을 줄이고 건강 습관 형성을 돕는 맞춤형 치매관리 콘텐츠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치매학회(2025)에 따르면 40대의 95%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예방 행동 실천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인핏45’는 서울시 대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과 연동돼 ▲치매위험도 자가 점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맞춤 미션(인지훈련,견기,퀴즈 등) ▲일일 건강습관 약속 ▲정기 평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목표 걸음 수 달성 시 서울 명소 위

즈 등으로 인지 자극을 유도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는 등 생활 속에서 뇌 건강 습관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끔 설계됐다.

브레인핏45는 만 45세 이상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앱 출시 운영 후 내년 3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참여 인원 2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향후 AI 기능 추가 등 고도화를 거쳐 개인별 치매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앱 이용자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60세 이상 참여자는 활동 결과에 따라 최대 1만천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서울페이를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장성 기자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수사한 주요 아이들

경기공유학교

세계창의력 올림파이어도
2025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 대상 수상

저희준 학생
용인미르아이 경희대 연세 AI SW 공유학교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강

경기공유학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생 맞춤수업**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경기도 학생에게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초3~고3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홈페이지 신설

- 3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지역공유학교**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지역별 상시 모집 중)
- **프로그램 출결·이수 내역** 확인 가능

경기공유학교 검색



gong-u.go.go.kr